

# 80년 5월 광주시민들, 전두환 만행 증언 한다

### 헬기사격 직접 목격자 등 5명 오늘 형사재판 출석 전두환 불출석... 검찰, 5·18 헬기사격 입증 주력

1980년 5월 그날, 전두환 신군부의 만행을 목격했던 시민들이 39년 만에 증인으로 나선다.

회고록을 통해 고(故) 조비오 신부와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하고도, 잘못이 없다며 버티고 있는 전두환(88)씨의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작 가해 당사자인 전씨는 재판장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음에 따라 이날 법정엔 나오지 않는다. 선고재판에만 출석해도 되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13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1980년 5월 당시 광주의 참상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5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증인 중에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헬기사격을 직접 목격한 시민도 포함되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증인은 "1980년 5월 21일 오후 옛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이 쏜 총탄에 남편이 상처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향하던 중 계엄군 헬기로부터 3차례(위협) 사격을 당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전두환씨를 기소한 검찰도 헬기사격 목격자들의 진술과 국과수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서, 국방부 특조위 백서, 5·18 당시 국방부가 작성했던 일부 문건 등을 증거로, 5월 당시 헬기 사격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반면 전씨 변호인은 이 같은 목격자 증언과 증거 등을 전면 부정하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전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헬기사격은 허위이며 헬기사격을 주장한 고 조비오 신부 등을 '거짓말쟁이'라고 지칭한 것 역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

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광주고법에서는 전씨 회고록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재판도 열린다. 5·18 관련 4개 단체와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회고록에 허위사실이 쓰였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해당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전씨 측은 '5·18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명예훼손이 없었다'며 불복, 항소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여수산단 대기오염 조작 기업 수사 확대

### 검, 수사대상 업체 12개로 늘어

검찰이 대기오염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측정 대행업체와 기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로부터 2차로 대기오염 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측정 대행업체와 대기오염을 조사한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날 대기오염 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대행업체 3곳과 업체 8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환경부는 지난주 여수산단 대기오염 등 업체 4곳을 추가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따라 검찰 조사를 받는

업체는 8개에서 12개로 늘었다.

검찰은 환경부로부터 추가로 자료를 넘겨 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갔으며 측정 대행업체와 업체가 공모했는지와 유착 관계가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떤 기업이 포함돼 있는지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환경부가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추가로 송치되는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환경부 조사결과 측정 대행업체 4곳은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 물질을 축소하거나 실제 측정치와 달리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 전남경찰청, 생활 악성폭력범 28명 구속

전남경찰청은 "지난 3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60일간 생활주변 악성폭력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23명을 검거하고 28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갈취·주취 폭력이 1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중교통 관련 위협 25명, 의료현장 폭력 행위 12명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50대 범행비율이 64.1%로 가장 높았다.

악성폭력범에게 당한 피해자의 직업은 상인이 84.3%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남성 52.5% 여성 47.5% 등으로 남녀간 큰 차이는 없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주요 구속사건은 여수의 한 섬마을에서 흥기로 상인 등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행패를 부린 자, 해남의 한 병원에선 의사를 주먹으로 때린 자,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상습 무임승차한 자 등이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 대부분은 만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범행을 했으며, 자신의 행위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악성 폭력범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5·18민주묘지, 금남로 일대 17~18일 교통대책 추진

광주시는 국립5·18민주묘지와 금남로 행사장의 원활한 운영과 참여자 교통 편의를 위해 교통대책을 추진한다.

기념식 당일인 18일에는 5·18민주묘지 방면으로 운행하는 518번 버스가 22회 증회 운행되고, 평소 장등동까지 운행되던 매일06번 노선은 공원묘지까지 연장해 7회 증회 운행한다.

5·18민주묘지 일원에는 광주시와 자치구, 모범운동회 교통정리반 50여 명과 지도차량, 경찰 등이 현장에 배치돼 교통소통 및 질서유지에 나선다.

5·18민주화운동 전야제 등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17일 오전 10시부터 18일 밤 12시까지 5·18민주광장-금남공원 구간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5·18민주광장 앞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22개 노선은 금남4거리에서 우회 운행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박금희 열사 추모 헌혈 캠페인** 광주기독병원에서는 지난 10일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박금희 열사를 추모하는 사랑의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 '금희의 오월·빛진자들'을 개최했다. 1980년 5월 당시 전남여성 전신인 춘태여상 3학년이던 박금희 열사는 광주기독병원에서 헌혈하고 귀가하던 중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다.

# 공천대가 인정 윤장현 전 광주시장 유죄

선거법 위반 징역 1년·집유 2년 업무방해 징역 6월·집유 1년

관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속아 공천 도움을 기대하고 거액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공천을 제공한 시점과 문자메시지 내용, 진술 등을 토대

로 사칭범에게 4억5000만원을 빌려 준 것은, 공천 대가 성격으로 공천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칭범 자녀 2명의 채용을 정략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50)씨의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사기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5000만원,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1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 전 시장의 부탁을 받고 계약직 채용에 관여한 전 광주시 산하기관 사업부장 이모(56)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은 당시 현직 광역단체장으로서 금품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경쟁자의 출마를 포기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광주 지역 정치와 선거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지방선거 전 자진해서 사퇴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시민활동가와 시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발전에 공헌한 점, 선처를 바라는 사람이 다수 있는 점, 사기 피해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만취·무면허 40대 운전자 119구급차 충돌 4명 부상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해 출동하던 119 구급차와 음주운전자 차량이 충돌해 구급대원 등이 다쳤다.

12일 광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11시30분경 광양읍 칠성리 한 교차로에서 긴급출동 중인 119구급차와 김모

(49)씨가 몰던 벤츠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구급차 운전자와 같이 탄 구급대원 등 3명, 벤츠승용차 운전자 김씨가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운전당시 면허 취소 수칙인 혈중 알코올농도 0.169%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면허도 없이 무보험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동산초 항의집회 김상진씨, 윤석열 지검장 협박 철창행

“...전두환 물러가라”고 외친 광주 동산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항의 집회를 주도했던 보수 성향 인터넷 방송 운영자 김상진(49)씨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철창행.

...12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날 말 윤 지검장 거주지 앞에서 방송을 하며 "자살특공대로서 죽어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고 위협하는

등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여당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협박 방송을 했다는 것.

...김씨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법정행기관장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협성이 크고 향후 수사 와 재판을 회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방수

##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질량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름,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 역사 현장에서 독서 토론하기

책 '소년이 온다'의 내용과 의미

역사는 살아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사 이해는 몸과 실천적 차원까지 올라가야 한다. 특히 5·18민주혁명의 역사 이해는 더욱 그러하다. 5·18민주혁명의 올바른 정신과 가치를 몸과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학자, 작가들의 강의를 듣고, 이어서 강사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기 간** 2019년 5월 23일, 24일, 30일, 31일(총 4회)

**시 간** 오후 3시 ~ 6시

**장 소** 광주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동구 금남로 221)

**대 상** 중3+고등학생(20명) + 학부모(10명)

**지 원** 학생 1인당 4만원 교통비 지급(한 단체 당 최대 80만원 지원) + '책' 무료 배부

**신 청** ☎ 010-5205-5668(문자로 연락 바람 단체 지원 환영)

**교육내용**

시 간	내 용	담당강사
1 5월23일(목)15~18시	1. 인문강의 청년의 용기와 도전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한승원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2 5월24일(금)15~18시	2. 소설강의 책 <소년이 온다>의 내용과 의미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박성천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3 5월30일(목)15~18시	3. 조별토론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박성천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4 5월31일(금)15~18시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장정희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주관 | 소크라테스대학법연구소

●주최 | 전라남도교육청

●후원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 (사)인문지행